

#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 만든다

## '탄소중립 실천하고 인센티브 받고'

###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주변·혁신도시·서신동·평화동 등 곳곳에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 추진

전주 곳곳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이 건립되고 있다.

전주시는 시민 누구나 누리는 스포츠 공간 거점을 확충하고 국내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등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과 혁신도시, 서신동, 평화동 등 곳곳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장동 월드컵경기장 일원은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거듭나고,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컬링 전용경기장 △남부권 체육센터 △태권도 전용경기장 △야구장 등 크고 작은 체육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조성돼 전주가 스포츠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 월드컵경기장 일원은 부지면적 약 64만7000㎡의 규모의 전주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된다. 오는 2024년까지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신축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복합스포츠타운에는 다양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육활동 건강 및 여가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도 조성돼 다기능·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거주·생활인구가 많은 혁신도시와 서부권(서신동)에도 다목적 체육센터가 건립된다.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의 경우 연면적 3909㎡에 수영장(6레인)과 체육강당, 다목적체육실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42%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 곳곳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이 건립되고 있다. (사진은 우범기 전주시장 현장방문 모습)

서신동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도 연면적 2349㎡에 수영장(5레인)과 체육강당, 다목적체육실 등을 갖춘 예정이다.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국민적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컬링 경기를 할 수 있는 컬링전용경기장 건립도 추진 중이다. 이곳은 연면적 약 3200㎡에 컬링경기장 5레인과 영상분석실, 회의실, 관중석 약 200석 정도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 설계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평화동에는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시는 연면적 2300㎡에 수영장(6레인), 체력인증센터, 육상 계이트볼장 등을 갖춘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이밖에도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을 위한 최적의 부지를 선

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전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스포츠경기를 관람하고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스포츠산업과 시민들의 체육복지, 건축도시로서의 위상도 함께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기자

### 전주시,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절약한 시민에 지급

전주시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전기·수도·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정과 상가 등 1만 909세대에 총 1억8068만316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최근 2년간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과 현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할 경우 가정 연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 연 최대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연중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

집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혹은 수용기번호를 확인한 후 탄소포인트제 누리집(point.or.kr)을 통해 가입하거나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지(완산구 노송광장로 29, 4층)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후 주수나 연차, 계좌번호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정상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지와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는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재훈기자

## “옴서감서” 로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 빌려요”

### 전주시, 멀리 떨어진 도서관 소장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전주시는 시민들의 도서대출 편의를 위해 멀리 떨어진 도서관 소장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옴서(서)감서(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대차 서비스인 '옴서(서)감서(서)'는 현재 전주지역 12개 시립도서관과 27개 공립작은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빌릴 때 멀리 있는 도서관을 직접 찾지 않고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를 빌려볼 수 있어 해마다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빌려본 도서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총 31만7000여 권에 달한다.

옴서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에 회원가입 후 '도서검색'란에서 원하는 책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옴서감서는 도서관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한 서비스로, 해마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 '전주시치매안심센터'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전주시보건소, 치매 조기 발견·예방 관련 정보 제공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카카오톡 채널은 누구나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전주시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하고 채널을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330명의 시민이 채널을 추가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간단한 검색으로 △치매 예방이 가능한 치매 예방운동법 △치매 자가 진단법 △치매안심센터 소개 △치매무료검진 협약의료기관 등의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대1 채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서비스와 다양한 치매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 인지 재활 프로그램 학습지를 제작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학습지 내용은 △기억력 학습 △계산력 훈련 △집중력 학습 △분류하기 △문제해결력 훈련 △인상하기 등의 치매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치매안심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23~24일 치매극복의 날 기념 주간행사 소식 및 다양한 건강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김재훈기자

## 전북 추석 연휴 4대 범죄 69건... 지난해보다 6건 ↑

추석 연휴 기간 전북 지역은 대형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부터 지난 11일 오전 9시까지 도내에서는 총 69건(검거율 97.4%)의 4대 범죄가 발생했다. 살인과 강도 등은 발생하지 않았고 절도 39건, 폭력 30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63건보다 6건이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로 모임 등이 늘어 주요범죄가 지난 추석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1일간 도내에서는 5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83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없었다.

지난해(9월 17~20일)의 경우 65건 발생에 사망 2명, 부상 88명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펼친 종합치안 활동을 통해 자

살기도자와 치매노인을 구조하는 등 곳곳에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졌다.

지난 9일 남원경찰서는 남원대교 위 도로를 맨발로 돌아다니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대교 아래 하천으로 들어가는 7세 자폐아동을 발견해 신속히 구조,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지난 8일 완주경찰서는 능이버섯을 채취하려 나갔다가 계곡물에 빠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80대 노인을 발견해 병원에 후송 조치하기도 했다.

/뉴시스

도 했다.

특히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금은방, 금요기관 및 편의점에 대해서는 취약요소 범죄예방진단(21.29회), 범죄사태·신고요령 등 온·오프라인 홍보(1593회)를 펼쳤다.

또 명절 기간 가정폭력은 자칫 강력 사건으로 확산할 수 있음에 따라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선제적 치안 활동과 도민의 협조로 추석 연휴 기간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